

## 일인 관학자들의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과 그 비판\*

선 석 열\*\*

### 【국문초록】

본고는 20세기를 전후하여 일본인 관학자들이 제기한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에 대해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일찍이 일본인 학자들은 일선동조론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 아래, 단군이 일본 상고의 신 소전명존이라는 주장이었다.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비판도 있었지만, 이는 단군의 존재를 왜곡한 것이다. 다음 일본인 관학자들의 불가조작설은 한국의 유교사가조차 단군신화를 황탄하여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점에 가탁하여 조작의 시기, 조작의 주체로서 불교 승려 일연을 들었다. 일본인 학자들은 단군신화에 대해, 중국 역사서에 보이지 않는 점과 조선의 유교사가가 한국 고대의 여러 신화를 황탄하여 믿을 수 없다는 점에 가탁하여 부정하였다. 특히 那珂通世는 단군의 王儉은 평양의 옛 이름인 王險의 ‘險’자를 인편(人扁)〔儉〕으로 조작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중국 사서에는 차자표기법을 적용하여 왕험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인칭인 왕검과 지명인 왕험은 표기한 것이며 조작은 아니다. 이는 王儉의 ‘王’은 국왕을 의미하는 ‘임금’의 훈독으로써 표기한 것이고, ‘儉’은 임금의 ‘금’을 음독으로써 표기한 것이며, 고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왕검은 인칭으로서 임금이라는 의미였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왕검’이었으며, 임금이 거처하는 왕성은 ‘왕험성’으로 표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위만 등장 이전에 이미 왕검의 존재가 전해지고 있었으며, 이후 한국에서는 불가 외에 유교사가들에 의해 인지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임금이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단군신화는 고조선 건국 당시에 인식된

\* 이 논문은 2021년 흥익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부경대학교 사학과 강사

것이며, 이는 고려시대의 승려가 단군신화를 날조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제어】

단군신화, 불가조작설, 일연, 차자표기법, 왕검, 임금, 역사적 실체

◆ 차례

1. 머리말
2. 일본인 관학자들에 의한 단군신화 불가조작설의 전개
3. 불가조작설에 대한 비판으로서 왕검의 역사적 의의
4. 맺음말

## 1. 머리말

明治維新 이후 일본은 國學者들에 의해 황국사관을 내세우는 한편, 朝日關係의 재정립에 갈등을 겪으면서 征韓論이 제기되었다. 이후에 추진된 조선침략과 병탄·지배의 유력한 관념적 지주를 조작하기 위해 韓國歷史像을 왜곡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한국고대사에 집중되었다. 188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상고시대부터 朝鮮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역사상을 만들어 갔다. 그중의 하나가 단군부정론으로 한민족의 시조로 보는 단군의 존재를 왜곡하고 한일양민족동원론, 즉 일선동조론을 창출하여 조선을 병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일제는 1910년대와 3·1운동을 거치면서 일선동조론과는 다른 시각으로서 추진한 단군부정론의 작업으로서 단군신화가 고구려시기나 고려 중기에 불교승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하는 주장,<sup>1)</sup> 즉 佛家操作說이다. 이 주장은 1890년대에 일본인 관학자들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가 1920년대에 재개되었던 것이다.

1) 이하 불가조작설이라 약칭.

20세기 전후 일본인 관학자들의 단군신화 부정론에 대해 단재 신채호를 비롯한 조선측의 민주주의 역사가들에 의해 단군국조론을 비롯하여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불교 등의 외래종교가 수용되기 전부터 한국에는 조직화된 고유종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이는 ‘神敎’·‘仙敎’·‘수두교’라 하며 단군에서 비롯되었고, 그 우수성으로 말미암아 민족문화 건설과 민족정신 고취의 토대가 되어왔다고 한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부정론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문제의식만 앞서 나간 까닭에, 교설적인 성격이 강하고 논리성과 실증성은 부족했다. 이러한 토착종교에 대한 연구가 더욱 다양하게 진척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 현대역사학의 연구가 크게 진척되면서 불가조작설에 대한 연구가 추구되었다.<sup>3)</sup> 고구려시기에 이루어졌다는 불가조작설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고분벽화 연구를 통해 단군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였으며, 유불도 등이 융합된 여러 가지 종교적 의미를 묘사한 것이 있다고 보았다.<sup>4)</sup> 최근에 단군신화의 신화소를 중심으로 세계 신화들과 비교하여 고려시대에 이르러 승려나 도가들이 단군신화를 날조하였다는 일본인 관학자들의 판단은 결국 신화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5)</sup>

- 
- 2) 申采浩, 『朝鮮上古史』; 『丹齋申采浩全集(上)』, 丹齋 申采浩先生 紀念事業會, 1987, 77~80쪽.
- 3) 한국 역사학계에서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에 대한 최초의 언급과 전망은 김철준에 의해 시도되었다.  
김철준, 「한국 고대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동방학지』 6, 1963, 84~86쪽.
- 4) 안휘준, 「韓國 山水畵의 發生 研究」, 『美術資料』 第26號, 1980; 齊藤忠, 「集安角低塚壁畵の熊と虎の畵」, 『東アジア葬制の研究』, 第一書房, 1987; 김진광 역,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조범중,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 한국고대 동물숭배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2; 최일레, 「고구려인의 관념에 보이는 단군신화의 투영 맥락- 비류부의 정치적 위상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55, 2010; 한영우, 『다시 찾은 우리 역사』, 경세원, 1992.
- 5)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2021.

필자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참고하면서 단군왕검의 어의에 초점을 맞추어 본고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먼저 불가조작설의 논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단군=소잔명존설을 소개해 두고, 그 설의 성격과 불가조작론자에 의한 비판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으로 불가조작설을 조작의 근거와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둘째, 불가와 대척이 되었던 유가들의 중국 및 한국의 역사서를 통해 단군을 부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검토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王儉’이라는 인명과 ‘王險’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의 어의를 추적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추구하여 불가조작설의 근거가 없음을 살펴보겠다.

## 2. 일본인 관학자들에 의한 단군신화 불가조작설의 전개

### 1) 단군=素戔鳴尊설의 제기

한국 고대 최초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 대해 일본인 관학자들은 불가조작설을 주장하였다. 단군신화의 佛家造作說이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것은 아니고, 먼저 일본 고대의 신화와 연결짓고자 하였다. 불가조작설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시 이를 소개하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落合直澄은 『동국통감』 外紀의 단군신화를 소개하고 조선 개국의 단군을 황당해서 믿을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日本春秋』의 기록과 대조하여 단군을 그들의 土稱으로 新羅明神 혹은 韓神이라 하는데, 단군은 太祈이고 素戔鳴尊의 아들인 五十

猛孫의 일명이 伊太祈曾이고 또 일명으로는 韓神 曾保利라고 한 점과 연결하여 주석하였다. 즉 단군이 素戔鳴尊의 아들이라 해석한 것이다. 素戔鳴尊이 단군을 남겨두고 일본으로 渡海할 때 단군목종자를 가져와서 일본의 大八洲에 번식시켰으므로, 이 신을 木神이나 功神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이다.<sup>6)</sup>

위의 주장에 이어 林泰輔는 단군에 대해 支那의 唐堯 때에 해당하며 神人이 태백산 檀木 아래 내린 자라는 설은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황당하여 믿을 수 없으며, 단군은 素戔鳴尊의 아들 五十猛이라고 하였다.<sup>7)</sup> 吉田東伍는 조선인이 古傳을 맹신하여 단군이 태백산에 내려왔다는 것은 부여가 南漸한 것을 가리키며 韓史 즉 한국의 역사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箕氏 이전의 太古와 결부시키려는 것은 전혀 엉터리라 부정하였다. 이에 대신하여 한국 시조가 素戔鳴尊이라는 설을 지지하였다.<sup>8)</sup>

靑柳南冥은 일선동조론의 시각으로 단군은 素戔鳴尊의 아들 五十猛으로서 일본의 天降神族과 같은 종족으로 서로 협력하여 동방을 평정하려고 하여 예맥 및 기타 蠻族을 정복하고, 神族이 향하는 곳은 파죽지세와 같이 초목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sup>9)</sup>고 하였다.

이는 1900년 이전에 이어 1920년대에 이르러 같은 주장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들은 단군신화를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면서도 한국 시조 [단군]=素戔鳴尊설은 근대 한국 역사학계의 ‘민족시조=단군’ 인식의 고양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한일합병을 전후하여 이를 더욱 부각시켜 태고 때부터 조선과 일본은 하였다

6) 落合直澄, 「檀君」, 『帝國紀年私案』, 吉川半七, 1888, 13쪽.

7) 林泰輔, 「開國ノ起源」, 『朝鮮史』, 吉川半七, 1892, 19쪽.

8)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富山房, 1893, 93~95쪽.

9) 靑柳南冥, 「檀君神話」, 『朝鮮史話と史蹟』, 朝鮮研究會, 1917, 1~7쪽.

는 논리로 제시하였고, 합병이 태고의 상태로 복귀한 것인 이상 빨리 동화되어야 한다.<sup>10)</sup> 이것이야말로 단군은 바로 한일합병을 증명하는 존재로 왜곡시킨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단군부정론이라고 부르기도 단군긍정론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sup>11)</sup> 당시 일인학자들이 한국사를 왜곡해가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군왜곡론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료비판으로 저명한 津田左右吉은 素戔鳴尊과 신라에 관한 기술은 모두 후대의 가필이며, 素戔鳴尊의 한국 강림을 부정하는 근거로 上代에 出雲 지방과 신라를 연결하는 동해항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sup>12)</sup> 그러나 고대 한국의 교통지리를 감안해 볼 때, 曾保利=춘천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항로를 통해 일본을 왕래한다고 하는 발상이 가능한지도 의문스럽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의하면 대방군에서 일본열도의 왜로 가는 노정이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돌아 김해의 구야국에서 바다를 건너 쓰시마의 對馬國-이키의 一支國-규슈의 末盧國을 거쳐 邪馬臺國에 도달한다는<sup>13)</sup> 기록에서 볼 때,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주요 항로는 서해안-남해안-대한해협-일본열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기록에서 보듯이 당시는 항해술이 연안항로를 통해 교류하였으므로, 춘천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항로를 통해 일본을 왕래한다고 하더라도 동해를 횡단 내지 중단하는

10)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1969: 旗田巍 著 이기동 역, 『일본인의 한국관』 일조각, 1983, 39~41쪽.

11) 이영화, 「일제시기 단군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 『한국사학사학보』 22, 2010, 10~11쪽.

12) 津田左右吉,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岩波書店, 1924, 209쪽.

13) 『三國志』 권30, 魏書30, 鮮卑烏桓東夷傳 倭人條,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 …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至對馬國 … 又南渡一海千餘里 名曰瀚海 至一大國 … 亦南北又渡一海 千餘里至末盧國 … 南至邪馬壹國 女王之所都”

방식은 가능하지 않으며 동해안을 따라 연안항로로 울산- 대한해협- 일본열도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기사를 예로 들어보면, 왜가 신라를 침공한 지역은 울산만에서 낙동강하구까지였으며, 심지어 고려 말기의 왜구도 부산만으로부터 서쪽의 남해 및 서해 연안이었고 동해안으로 북상한 적이 없었던 연구를 보더라도<sup>14)</sup> 고대 한일교류의 주요 통로는 동해가 아니었음도 아울러 참조된다.

稻葉君山은 조선인 중에서 단군신화를 일컬었음에 대해 단군신화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한편, 「滿鮮不可分論」을 주장하고 조선 역대의 왕가는 만주나 대륙의 패배자가 한국으로 도망쳤던 것이며, 한국과 만주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일체 불가분이고 조선만의 독자적 존재는 있을 수 없음을 주장했다.<sup>15)</sup> 고구려와 백제는 동명전설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라는 난생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고려가 통일하면서 기자전설이 등장하였고, 지배자계급은 대외적 필요에 의해 기자전설을 공행하였다. 그러나 민족적 신앙심은 단군전설에 있었다.<sup>16)</sup> 그리고 今西龍은 素戔鳴尊이 불교의 '牛頭天王'이라고도 하여 曾尸茂利의 '曾茂利'의 조선어 훈독이 '소머리'여서 우두천왕의 칭호가 조선에서 유래되었고,<sup>17)</sup> 曾茂利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牛頭山으로 비정하여 素戔鳴尊=단군설이 근거도 없이 유포되었다고 비판하였다.<sup>18)</sup> 한 가지 덧붙인다면 춘천으로 비정한 曾尸茂利에 대한 『日本書紀』의 기록은 신라국의 曾尸茂利<sup>19)</sup>라

14) 선석열, 「신라·가야시기 부산지역 대외교류의 변화와 발전」, 『항도부산』 29, 2014, 22~24쪽.

15) 稻葉君山, 「檀君說話」, 『朝鮮史學』 6, 朝鮮史學同攷會, 1926年, 1쪽.

16) 旗田巍, 「朝鮮史研究の課題-朝鮮史研究會第二回大會によせて」, 『歴史學研究』 294, 1964: 『朝鮮史入門』, 太平出版社, 1966, 22쪽.

17) 今西龍, 「檀君考」, 『靑邱說叢』 1, 1927;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1, 77쪽.

18) 今西龍, 위의 책, 1971, 83쪽.

19) 『日本書紀』 卷1, 神代 上, 第八段 一書 第四 “是時 素戔鳴尊 帥其子五十猛神 降到於新羅國 居曾尸茂梨之處”

고 하였으나, 춘천이 신라의 영토가 된 시기는 551년 신라의 한강유역 영유 이후이므로, 태고적의 일본에 素戔鳴尊과 그 아들 五十猛孫이 신라국의 曾尸茂利에 살았다는 것은 일인학자가 자국의 역사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로서 한국의 기록인 단군의 기록을 허구로 부정하고 素戔鳴尊=단군설을 제기한 셈이 된다.<sup>20)</sup> 최남선도 단군조선은 서기전 2333년에 시작되어 일본의 서기전 660년보다 1673년이나 앞서 시작되었으므로, 素戔鳴尊=단군설은 부정된다고 간결하고 단호하게 비판하였다.<sup>21)</sup>

## 2) 불가조작설의 전개

1980년대에 이르러 불가조작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那珂通世인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조선시대의李克墩이 『동국통감』의 序에서 자료 부족으로 인해 삼국 이전의 시기를 外紀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 발단에서 기술하고 있는 단군전설만큼은 漢史, 즉 중국의 역사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부 조선인이 만들어낸 것이다. 단군의 이름을 王儉이라 쓰고 있는 것은 평양의 옛

20) 시라토리가 조선후기의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춘천의 牛頭州 역시 牛頭梅檀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하였는데(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1894 : 『白鳥庫吉全集』 3, 岩波書店, 1970, 4쪽), 이는 시라토리가 단군을 부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춘천을 牛頭方이라고 한다(동권19, 欽明紀 13년(552) 是歲條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 그런데 시라토리가 曾尸茂利나 牛頭州라고 하는 춘천을 자국의 기록에서 ‘牛頭方’이라는 지역이 본래 백제의 땅이었다가 552년 신라가 영유했다는 연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사의 왜곡에 집착한 나머지 조선시대 학자의 기록을 빌려 자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을 뿐이므로, 역사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도 가지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1) 崔南善, 『故事通』, 삼중당, 1943, 6~7쪽.

이름인 王險의 ‘險’자를 인편(人扁)〔儉〕으로 바꾼 것이다. 『삼국사기』의 東川王 21년에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라 기술하고 있는 것은 왕검을 列仙傳 가운데의 인물로 보고 개국의 太祖로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檀君之舊都라고는 하지 않고 仙人之宅이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기술이다. 따라서 단군신화는 僧徒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뽑아 쓴 것이므로, 단군신화는 佛說에 근거한 가공의 仙譚이다. 단군은 조선국의 선조가 아니라 고구려의 선조이다.<sup>22)</sup>

이어 白鳥庫吉에 의해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고조선의 개국 시조로 전하는 단군의 史籍은 중국사서로서 北齊의 天保 연간에 魏收가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魏書』를 비롯하여 한국 기록으로는 『筆苑雜記』에 인용된 『古記』와 『燃藜室記述』 별집에 인용된 『三韓古記』에 기록되어 단군전설의 유래가 오래였다. 그러나 단군의 사적이 구비되었다고 보더라도 중국의 『尙書』 『史記』 『漢書』 등에 기록되어야 함에도, 유독 한국의 삼국 『古記』와 아울러 『魏書』에만 보이는 것은 의아하며, 특히 망설이 본색을 드러내는 고기의 존재이다. 『삼국유사』의 단군전설을 전하는 『古記』는 佛說에 근거한 가공의 仙譚이었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환웅 또는 단군이 강림한 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으로 불법이 극히 흥할 때 사찰에서 그 遺書를 남긴 것이다. 檀木(신단수)이란 불교 경전의 牛頭梅檀에 근거한 假作으로 믿을 수 없다. 釋提桓因이 단군의 조부라고 정한 다음, 환인의 태자 梅檀이라 한 것을 단군이라 칭하여 환인의 손자라 한 것이다. 『삼국사기』의 아란불과 가섭원도 佛說에 기초하는 허망한 명칭으로 阿蘭弗은 阿蘭若의 조작이고 迦葉原是 摩訶迦葉으로부터 창출한 것이다. 단군전설의 기원은 소수림왕 2년(372)에서 양원왕 7년(551) 사이 고구려사회에 불법이 왕성해지면서 조작된 것이다.

22) 那珂通世, 「朝鮮古史考-朝鮮樂浪玄菟帶方考」, 『史學雜誌』 5-4, 1894, 37~58 쪽.

단군의 이름은 王儉이라 함에서 王險은 위만의 도움으로 단군이 평양에 도움했다는 일도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에 천도 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3)</sup> 다시 말하면 중국과 투쟁한 고구려가 극성한 장수왕 때에 평양에 천도하면서 불설에 가탁하여 단군전설을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1920년대에 이르러 단군=素戔鳴尊설이 학술적 근거나 논리가 결여되어 있음에 대응하여 일본학계에서 今西龍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단군 관련 전적들을 모두 취급하여 불가조작설은 학술적으로 부연해 나갔다.

三浦周行은 단군전설은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고 『삼국유사』에 처음 보이며, 1145년에서 128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기자전설은 고구려시대에 성립되었고, 단군전설은 기자전설보다 훨씬 후대인 고려시대에 발생하였다. 기자전설을 채용하여 사대심을 표하면서도 독립자존심의 발흥과 종주국에 대한 반항심으로 단군전설이 생겨나게 되었다.<sup>24)</sup>

高橋亨은 帝國大學本 『삼국유사』의 단군전설을 해석하여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고 있는 것에 편승해 불교 중에 천계의 왕인 제석천을 단군의 조부라 주창하고 마침내 교묘하게 단군을 불교 내의 것으로 삼았다. 주몽은 천제의 손자와 하백의 딸 사이의 아들이고 단군은 제석천왕의 손자와 웅녀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단군-부루[고구려 제1대 왕]-주몽의 世系를 창출하였다.<sup>25)</sup> 이러한 불교적 전설을 구성한 것은 고려말에 불교도인 일연이 단군전설의 原義를 상실하고 불법홍통을 위해 단군전설을 개작하여 전하였다는 것이다.<sup>26)</sup>

小田省吾는 『魏書』는 물론 중국의 어느 사서에도 단군기사는 보이지 않으며, 『高麗圖經』이나 『묘향산보현사비』에도 단군기사가 없다. 단군

23) 白鳥庫吉, 앞의 책, 1~14쪽.

24) 三浦周行, 「朝鮮の開國傳説」, 『歴史と地理』 1-5, 1918.

25) 『삼국사기』에는 주몽이고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이라 했다.

26) 高橋亨, 「檀君傳説に就きて」, 『同源』, 同源社, 1920, 5~16쪽.

전설은 본래 묘향산 山神緣起와 平壤仙人의 전설이 혼동됨에서 생겨난 평양의 開闢緣起이다. 예를 들면, 오다는 환인제석이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것을 승려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단군이 태어났다는 묘향산에 김부식이 찬술한 『묘향산보현사비』에도 언급이 없으며 『高麗圖經』에도 없다. 즉 고려 후기 충렬왕 이전에는 없었다. 단군전설은, 첫째 고려의 전신인 고구려 시조 주몽의 출자를 단군과 결부시키고 이를 제석천에 부회하고 이를 위해 불타의 보호를 받을만한 특별한 國柄임을 보여주기 위해 조작한 것이며, 둘째 고구려 후계인 고려는 고구려 영토인 만주와 한반도를 지배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 하였다.<sup>27)</sup> 충렬왕 때에 처한 국정 상황[원의 간섭]을 극복하기 위해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今西龍은 불가조작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결론지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신화를 역사학의 대상으로 삼아 일연이 찬술한 『삼국유사』에 인용된 중국사서 『魏書』에는 단군전설이 실려 있지 않은 한편으로,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단군조차 보이지 않고 고려전기 당시 단군의 존재도 몰랐다고 판단하였다. 고려 중엽에 이르러 승려는 本地垂跡說을 세우고 이 선인과 보살의 혼일을 도모하고자 한 적이 있다. 이 선인의 하나에 평양의 수호신 王儉仙人이 있고 평양의 옛지명 王險의 ‘險’의 한 획을 고쳐 ‘儉’으로 하고 人名과 같게 했다. 고려의 중엽 아마도 高宗王 때에 이 왕검선인에 단군의 존호를 바쳐 단군왕검이라고 칭하고, 이를 조선 개국의 神人으로 했다. 그리고 帝釋의 아들 환웅이 妙香山 檀樹 아래로 내려와 낳은 아들 단군이 조선을 열었다고 한다. 생각컨대 고려가 尊奉한 중화의 송은 약하여, 고려는 그 北狄인 遼·金이 쫓기하여 皇이라 칭하고 帝라고 호령하며, ...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자칭하는 것, 고구려는 王險의 땅 즉 평양으로 도읍하고 왕검선인은 개국의 神人이라는 전설은 필시

27) 小田省吾, 「謂ゆる壇君傳説に就て」, 『朝鮮史講座』, 朝鮮史學會, 1926, 35~36쪽.

陰陽道者流의 지리참위설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sup>28)</sup> 단군의 칭호와 현존하는 전설은 고려 중기 이후에 작성되었고 그 주체는 옛부터 전해져 오는 地祇였는데, 이는 불교와 도교에 의해 이야기가 구성된 것이다. 단군이라는 호칭은 도교적 호칭인데, 평양 방면의 地祇인 仙人王儉에 붙인 것이었다. 단군의 계보를 가급적 오래된 것으로 조사해 보면, 또는 선인왕검은 낙랑과 대방의 중국민족(漢民族)이 제사지내던 신에서 계통을 끌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북쪽 변방에서 간신히 제사가 이어지고 있던 고구려의 해모수일 것이다. 원래 평양 지방의 한 地祇에 불과했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신이었지만, 그 기원설의 구성이 민족의 자존을 내세우는 시대사상과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서적에도 기재되고 그 설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씨조선에 이르러 관찬한 역사서의 서두에 개국의 신인으로 기재되자 그 연기의 구성이 민족의 자존을 느낄 때의 사상에 우연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서적에도 기재되기에 이르러 ... 그 설이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고 역사적 신인으로 확고한 위치를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단군은 다만 단군으로서 안치되었을 뿐, 종교적 신앙이 일어난 것은 현대에 와서였음을 논하였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단군이 본래 부여·고구려·만주·몽골 등을 포괄하는 통구스족인 부여의 神人으로서 오늘날 조선민족의 본체가 되는 민족의 신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부모 중 한쪽이 신이고 나머지 한쪽이 동물이라는 전설은 절대로 불교적 장식과 도교적 영향에 따라 생길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통구스족의 조상신에게만 특유하게 있는 것<sup>29)</sup>이라고 논단하였다.

한국 현대역사학계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가 추구되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8) 今西龍, 「上古-原始時代及び開國傳説」(1919); 『朝鮮史の槩』, 近澤書店, 1935, 65~73쪽.

29) 今西龍, 「檀君考」, 『靑邱說叢』 1, 1929;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5세기 후반 축조의 '장천1호분'과 5세기 말엽 축조의 '각저총'과 에 단군신화 관련 소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30)</sup> 벽화에 표현된 곰과 나무에 기원하는 여인의 모습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여성신의 표상이며, 단군을 시조로 인식하는 집단의 시조모의 표현이다.<sup>31)</sup>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는 씨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 외에 전통적인 토템신앙 태양 숭배 지모신 숭배 샤머니즘 주술, 신화를 반영하는 인격신 등<sup>32)</sup> 여러 가지 종교적 의미를 묘사한 것이 있다. 불가조작설을 방대하고 시대별로 구체적으로 논급한 今西龍의 주장을 집중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단군신화 속에는 토테미즘, 한반도 사회가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이행하는 단계의 지식, 곰에 대한 숭배, 곰과 인간이 대칭적인 존재라는 인식 등이 들어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에 이르러 승려나 도가들이 청동기시대의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일본인 관학자들이 고려시대인들에 의해 단군신화를 날조하였다고 하는 판단은 결국 신화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33)</sup>

### 3. 불가조작설에 대한 비판으로서 왕검의 역사적 의의

#### 1) 단군왕검과 선인왕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단군왕검의 표기는 선인왕검이라고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에 관한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30) 齊藤忠, 앞의 책, 268쪽; 김진광 역, 앞의 책, 213~214쪽; 조법중, 앞의 논문, 377쪽.  
 31) 최일례, 앞의 논문, 214~217쪽.  
 32) 한영우, 앞의 책, 79쪽.  
 33) 이근우, 앞의 논문, 32~36쪽.

- 가)-1. 2월에 왕이 환도성이 전란을 겪어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여겨 평양성을 쌓고 백성 및 종묘 사직을 옮겼다. 평양이란 仙人王儉의 덕이다.<sup>34)</sup>
- 가)-2. 평양의 선조는 仙人王儉으로, 지금까지도 백성이 남아 있으니 당당한 司空이시다.<sup>35)</sup>
- 가)-3. 『魏書』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에 壇君王儉이 있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어 朝鮮이라 하였다.’ 『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어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sup>36)</sup>
- 가)-4.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 釋帝의 자손으로 이름은 檀君이라네[세주 ; 『本紀』에서 말하기를 ‘上帝 桓因에게 서자가 있었는데, 桓雄이라고 하였다. ...檀樹神과 혼인케 하여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이름을 檀君이라 하였다.’<sup>37)</sup>
- 가)-5. 漢 元帝 建昭 2년 갑신년에 마한의 王儉城[세주 ; 지금의 서경(西京)이다]에서 건국하다.<sup>38)</sup>

가)-1의 『삼국사기』에 의하면 246년 曹魏 장수 관구검의 침공으로 수도의 환도성이 함락되고 옥저까지 몽진을 갔다가 돌아온 고구려 동천왕이 수도의 복구가 어려워 247년에 축조한 평양성으로 옮겼는데, 찬자가 평양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면서 평양이 선인왕검의 집이었다고 하였다. 가)-2의 조연수묘지명은 1325년(충숙왕 12년)에 조연수(1278~1325)를

34)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 21년조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平壤者, 牽仙人王儉之宅也.”

35) 「趙延壽墓誌銘」 “平壤之先, 仙人王儉, 至今遺民, 堂堂司空.”

36) 『삼국유사』 권1, 기이 제1 고조선조.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號曰壇君王儉.’”

37) 『제왕운기』 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前朝鮮紀. “初誰開國啓風雲, 釋帝之孫名檀君, [세주 ; 本紀曰. ‘上帝桓因, 有庶子曰雄, …與檀樹神, 婚而生男, 名檀君.’”

38) 『제왕운기』 下, 「東國君王開國年代」 高句麗紀. “漢元立昭二甲申, 開國馬韓王儉城[세주 ; 今西京也].”

기리기 위해 李叔琪가 찬술한 것이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 보면, 평양 조씨가 자신의 가문을 선인왕검의 후손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가)-3의 『삼국유사』에 의하면 일연이 『위서』와 『고기』를 인용하면서 고조선을 건국한 인물에 대해 단군왕검이라고 칭하였다. 가)-4의 『제왕운기』 고조선기에 의하면 釋帝의 자손을 檀君이라 하고 그 주석인 『본기』 즉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상제 환인의 서자 환웅이 단수신과 혼인하여 낳은 아들을 檀君이라고만 하여 단군왕검이라 칭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같은 『제왕운기』인 가)-5의 고구려기에서는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건국한 곳을 마한의 王儉城이라 하고 『본기』 즉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왕검성을 지금의 평양이라 한 점에서 지명으로서 왕검의 명칭도 등장하였다.

가)-1과 가)-2의 경우 전자라 하고 가)-3과 가)-4 및 가)-5를 후자라고 하여 서로 비교해 보겠다. 전자의 경우 『삼국사기』의 편찬자 김부식과 조연수묘지명의 찬술자 이숙기는 모두 유학자이며 평양의 유래를 단군왕검이라 하지 않고 선인왕검이라 하였다. 원래 仙人은 인간이면서 영원의 생명을 획득해서 불로장생을 이룬 자를 말한다. 고려시대의 仙人은 법가노부에서 임금이 문묘 등에 행차할 때 타던 수레와 그에 따라 갔추던 의장에 편성된 ‘가운집박선인대기’ ‘봉보주선인대기’ 등 인원의 직명에 사용되었다.<sup>39)</sup> 묘청이 왕에게 서경으로 천도해야 함을 설득하여 임원궁에 성을 쌓고 궁 안에 팔성당을 설치하였는데,<sup>40)</sup> ‘平壤仙人實德燃燈佛’ 등과 같이 선인왕검을 가리키는 평양선인과 불교 연등불이 연칭되어 등장한다. 이는 신선사상과 불교사상이 융합된 신앙을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의 왕검과 관련된 선인은 평양지역에 한

39) 『고려사』 권72, 輿服志 1 法駕鹵簿 “駕雲執拍仙人大旗二, … 捧寶珠仙人大旗”

40) 『고려사』 권127, 열전 40 妙淸傳. “八聖 … 四曰駒麗平壤仙人, 實德燃燈佛, 五曰駒麗木覓仙人 實德毗婆尸佛”

정된 칭호로 사용되었다.

후자의 경우 『삼국유사』의 편찬자 일연과 『제왕운기』의 편찬자 이승휴는 각기 승려와 유학자였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단군왕검이라는 칭호는 고려시대의 경우 『삼국유사』에서만 사용한 칭호이다. 『제왕운기』에서는 단군만 호칭하였으며, 왕검이라는 칭호는 시조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곳을 왕검성이라 하면서도 고조선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가)·5의 『제왕운기』에서 전하는 왕검성의 경우에도 주몽이 건국한 곳으로 되어 있으나, 그곳이 평양으로 비정한 점에서 주몽이 건국한 곳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사서에서 주몽의 건국지를 비류수라고 하여 압록강 중류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평양은 427년 장수왕이 천도하여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의 도읍이었다. 다시 말하면 『제왕운기』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에 있어 단군만을 칭하였으나, 왕검은 고구려와 관련되어 칭하고 있었을 뿐이다.

후자 기록의 공통점은 선인이라 하지 않고 단군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점인데, 지역적 의미의 선인과 달리 단군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최남선은 언어학과 인류학적으로 檀君王儉의 어원과 정치사회적 성격을 규명하려 하였다. 檀君을 巫를 의미하는 방언으로서의 ‘당굴’, ‘당구리’ 또는 天·拜天을 의미하는 몽고어의 탕그리(Tengri)의 音寫로 보고, 王儉은 大人에 해당되는 ‘옴굼’, ‘엥킴’ 등에 비정하였으며, 삼한사회에 있었던 天君과 통하는 것이라 보았다.<sup>41)</sup> 정치사회적으로는 檀君이 司祭의인 성격을 가졌고, 王儉이 政治的 君長의 역할을 하였으리라고 보고 두 역할을 겸하고 있는 檀君王儉의 존재로 보아 그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제정일치 단계의 사회로 이해하였다.<sup>42)</sup>

41) 崔南善, 「不咸文化論」, 『朝鮮及朝鮮民族』 1, 1927 ;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60쪽.

42) 李丙燾, 「檀君神話의 解釋과 阿斯達 問題」, 『서울대 論文集』 2(인문사회과학편), 1955 ;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76, 34쪽. 필자의 생각으로는 고

본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인왕검이라는 칭호는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에 유학자들이 지역에 국한된 칭호로 사용하였으나, 단군왕검이라는 칭호는 고려 후기에 승려만 사용한 것으로 된다. 어쨌든 고려시대에는 왕검이라는 명칭이 칭호나 지명에 모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각각의 기록에 공통분모인 왕검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추구하고 싶다.

## 2) 왕검의 어의와 역사적 유구성

일본인 학자들은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두고 『尙書』 『史記』 『漢書』 등 漢史 즉 중국의 사서에 보이지 않는 점과 이를 근거로 한 고려나 조선의 유교사가가 한국 고대의 여러 신화를 황탄하여 믿을 수 없다는 점에 가탁하여 단군신화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고려나 조선의 유학자들 가운데 고려 전기의 김부식이나 조선 초기 권근 등의 유학자들은 고대의 신화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사서에 기자동래의 기록이 전해지고 단군신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단군신화의 전승을 마냥 허구로 치부할 수 있을까.

특히 유의해 볼 것은 다음 몇 가지의 견해이다. 那珂通世는 단군의 이름을 王儉이라 쓰고 있는 것은 평양의 옛 이름인 王險의 ‘險’자를 인편(人扁)〔儉〕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3)</sup> 이에 부연하여 今西龍은 고려 중엽에 이르러 승려는 本地垂跡說을 세우고 이 선인과 보살의

---

조선의 단군왕검이라는 칭호가 檀君이 司祭의인 성격을 가졌고, 王儉이 政治的 君長의 역할을 하였으리라고 보고 두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본 점을 참고할 때, 삼한 소국의 主帥 즉 君長과 天君은 분리된 칭호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삼국사기』 신라본기 혁거세거서간 즉위조의 건국신화에 고조선의 유민이 진한지역에 분거하였다고 한 점, 고조선 초기의 제정일치 사회가 삼한시기에는 제정분리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조선과의 역사적 맥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과제로 삼기로 한다.

43) 那珂通世, 앞의 논문, 1894, 46쪽.

혼일을 도모하고자 한 적이 있다. 이 선인의 하나에 평양의 수호신 王儉仙人이 있고 평양의 고명 王險의 '險'의 한 획을 고쳐 '儉'으로 하고 人名과 같게 했다고 주장하였다.<sup>44)</sup> 이어 小田省吾는 단군을 한국어로 읽으면 단님이 되는데, 곧 달님의 와전이라 하였으며, 한국어에서 달은 산이나 구름을 뜻하는 말로서 '達'이라는 글자를 해당 지명의 어미로 쓰였다. 그리고 님은 君이나 主 혹은 神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단군은 山神의 의미로서 만들어진 명칭이라 추정하였다.<sup>45)</sup>

이에 대해 최남선은 王儉이 '음김', '영کم'에 비정하고 정치사회적으로 檀君이 司祭的인 성격을 가졌고, 王儉이 政治的 君長의 역할을 하였으리라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sup>46)</sup> 신채호는 왕검이 임금을 뜻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금을 王儉이라 번역하고 王은 字義에서 소리의 전반을 취하여 '님'으로 讀하고 儉은 그 자음에서 취하여 '금'으로 讀한 것이며 한국 역대의 제왕들이 이를 본받아 칭호를 '임금'이라 칭하였다고 풀이하었다.<sup>47)</sup>

위의 몇 가지 표기와 해석은 단군왕검의 존재 여부를 해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나)-1. 平壤者 李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險”<sup>48)</sup>  
 나)-2. 朝鮮王滿者 故燕人也[세주 : 姓衛]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儉<sup>49)</sup>  
 나)-3. 燕人衛滿亡命聚黨千餘人,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儉<sup>50)</sup>

44) 今西龍, 앞의 논문, 78쪽.

45) 小田省吾, 앞의 논문, 1924, 36쪽.

46) 崔南善, 앞의 책, 1973, 61쪽.

47) 申采浩, 앞의 책, 1987, 78쪽.

48)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 21년조.

49) 『史記』 권115, 열전 제55 조선전.

50) 『삼국유사』 권1, 기이 제1 위만조선조.

나)-1의 『삼국사기』에서는 ‘평양은 본래 仙人 王儉의 집이다.’라고 서술한 다음의 주석에 대한 해석을 두고 ‘왕의 도읍이 王儉이다.’라고 하거나 ‘왕이 되어 왕험에 도읍하였다.’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후자는 나)-2의 『史記』 조선전의 내용을 근거로 ‘왕이 되어 왕험에 도읍하였다’라고 해석하였으나,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해 와서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나)-1의 평양성에 대한 설명에서 그곳은 본래 仙人 王儉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왕검의 집에 대한 주석으로써 전자와 같이 『史記』의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왕의 도읍이 王儉이다.’라고 해석하여 왕검인 고조선 왕의 도읍이 왕험이라고 재해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sup>51)</sup> 『삼국사기』의 찬자가 중국사서에서 인용하여 평양에 대한 유래를 서술했다고 하더라도 고조선 원래의 사실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나)-3의 『삼국유사』에서는 나)-2의 『史記』 조선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史記』와 같이 ‘왕이 되어 왕험에 도읍하였다’로서가 아니라 『삼국사기』와 같이 ‘왕의 도읍이’라고 해석하나 도읍을 ‘王儉’이라 하지 않고 ‘王儉’이라 표기한 점이 이채롭다.

여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왕험과 왕검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다. 나)-1에 제시해 두었듯이 『삼국사기』에는 왕검과 왕험을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나, 나)-3과 같이 『삼국유사』에는 왕의 王儉과 왕성의 王儉으로 모두 ‘儉’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삼국유사』가 고조선의 왕성으로 전해진 왕험성을 왕검성으로 파악하여 고조선의 국왕인 왕검의 성이란 뜻으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주목해볼 만한 대목은 위만이 도읍하였다는 왕험성의 존재이다. 나)-2의 『史記』 조선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어도 자신의 도읍지를 바꾸지 않고 예전의 도읍지 왕험

51)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396~397쪽 :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2-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475쪽.

을 도움으로 정하였으며, 손자 우거왕 때에 한무제의 공격에 의해 멸망할 때 함락된 왕성도 왕험성이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고조선의 도움 왕험은 위만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엄연히 도움으로 존재하였으며, 계속하여 王險이라 불렀다는 사실이다. 王險은 『漢書』地理志 遼東郡條의 險瀆의 註에는 ‘물의 험함에 의거한 고로 험독이라 한다.’<sup>52)</sup>라고 하여 강에 의거하여 지세가 험준하다는 뜻으로 혼독하여 ‘險’자를 붙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중국식 借字表記法이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지명을 표기할 경우 ‘險’이라 표기하는 반면에,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卍丘儉 張儉과 같이 ‘儉’이라 표기한다.

고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王儉의 ‘王’은 국왕을 의미하는 ‘임금’의 訓讀으로써 표기한 것이고, ‘儉’은 임금의 ‘금’을 音讀으로써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53)</sup> 즉 임금을 혼독과 음독의 복합적인 차자표기법으로 왕검으로 표기했던 것이다. 차자표기법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신채호가 왕검의 표기에 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왕검은 국왕의 호칭으로서 임금이라는 의미였다. 고조선의 차자표기방식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王儉’이었으며, 임금이 거처하는 왕성은 ‘王險城’으로 표기하였다고 생각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시대에는 고조선의 왕성인 王險城을 王儉城이라 표기한 것도 고조선의 왕인 ‘왕검의 성’이란 뜻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분석해 볼 경우 주목되는 것은 왕검의 유래는 고조선시대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왕검과 왕험[성]에 대한 『史記』의 기록을 통해 보면 위만 등장 이전의 고조선에 대한 정보가 중국사서에 동

52) 『漢書』 권28, 地理志 8下 遼東郡條 “險瀆[細註: 依水險 故曰險瀆]”

53) 이와 유사한 차자표기법은 신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尼師今의 경우이다. 김대문의 설명에 의하면 이사금을 ‘齒理’라고 표기하였다(『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이사금 즉위조 ; 『삼국유사』 권1, 기이1 제2 남해왕조). 즉 ‘잇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는 ‘임금’을 신라식의 차자표기법으로 표기한 것으로 그 유래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적인 형태로 그대로 남아 전해진 것이다. 중국사서에서 단군에 대한 전승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조선 국왕의 왕검이라는 칭호는 단군왕검의 존재를 은연중에 드러내어 놓았다고 생각된다. 왕검 즉 임금의 칭호는 신라의 이사금으로도 전해져서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국왕을 임금이라 불러오고 있는 역사적 실체였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인 관학자들이 단군이나 단군신화에 대한 사적이 중국사서에 전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삼아 단군과 단군신화를 불가가 조작했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었다고 판단된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20세기를 전후하여 일본인 관학자들이 단군신화가 불가들에 의해 조작하였다는 시각 즉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가조작설을 검토하기에 앞서 일본인 학자들이 제기한 것은 단군이 일본 상고의 신 素戔鳴尊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일제의 식민사관의 한축을 이루는 타율성론에 입각하여 일선동조론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사료비판으로 저명한 津田左右吉을 비롯한 일본 학자들의 비판도 있었다. 단군=素戔鳴尊 설에 대해 단군신화를 긍정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이들의 견해는 단군의 존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 일본인 관학자들이 제기한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에 대해 소개하였다. 불가조작설은 먼저 那珂通世에 의해 제기되어 王儉의 字句 분석을 행하여 평양의 옛 이름인 王儉의 ‘險’자를 ‘儉’자로 바꾼 것이라 하였다. 白鳥庫吉에 의해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

으며, 今西龍이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논의를 전개하였다. 白鳥庫吉은 고구려가 극성한 장수왕 때에 평양에 천도하면서 불설에 가탁하여 단군전설을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今西龍은 단군전설이 중국의 역사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조선의 유교사가도 한국 고대의 여러 신화를 황탄하여 믿을 수 없다는 점에 가탁하여 단군신화를 부정하고 전부 일연을 비롯한 불교 승려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불가조작설에 대해 국내 사서인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제왕운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고려시대의 관련 금석문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사기』를 비롯한 중국의 역사서를 통해 불가조작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일본인 학자들은 중국 역사서에 보이지 않는 점과 조선의 유교사가가 한국 고대의 여러 신화를 황탄하여 믿을 수 없다는 점에 가탁하여 단군신화를 부정하였다. 고려시대의 유학자들은 단군왕검을 선인왕검이라 표기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군이라는 칭호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도 참조될 것이다.

둘째, 왕검에 대한 표기를 살펴보았다. 那珂通世가 단군의 王儉은 평양의 옛 이름인 王險의 ‘險’자를 인편(人扁)〔儉〕으로 바꾼 것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 및 한국 역사서의 관련 내용을 통해 중점적으로 비판하였다. 왕검과 왕협은 차자표기법을 적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문제의 기록은 『史記』의 王滿 ... ‘王之都王險’인데, 한국의 전승 기록인 『삼국사기』에서 ‘平壤者 牽仙人王儉之宅也’ 다음에 ‘王之都王險’이라 옮겼다. 이는 王儉의 ‘王’은 국왕을 의미하는 ‘임금’의 훈독으로써 표기한 것이고, ‘儉’은 임금의 ‘금’을 음독으로써 표기한 것이며, 고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왕검은 국왕의 칭호로서 임금이라는 의미였다. 일본인 과학자들이 중국 역사서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중국사서에 전하고 있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王儉’이었으며, 임금이 거처하는

왕성은 ‘王險城’으로 표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위만 등장 이전에 이미 왕검의 존재가 전해지고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불가 외에 유교사가들에 의해서도 인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왕검 즉 임금의 칭호는 역사적 실체로서 신라의 이사금으로도 전해져서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국왕을 임금이라 불러오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三國史記』, 『帝王韻紀』, 『三國遺事』, 『高麗史』, 『東國通鑑』, 『燃藜室記述』, 『史記』, 『漢書』, 『三國志』, 『魏書』, 『日本春秋』, 『日本書紀』

旗田巍 著, 이기동 역, 『일본인의 한국관』 일조각, 1983.

이기백 편, 『단군신화론집』, 새문사, 1988.

申采浩, 『朝鮮上古史』(1931); 『丹齋申采浩全集(上)』, 丹齋 申采浩先生 紀念事業會, 1987.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76.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2-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崔南善, 『故事通』, 三中堂, 1943.

崔南善,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旗田巍, 『朝鮮史入門』, 太平出版社, 1966.

今西龍, 『朝鮮史の栞』, 近澤書店, 1935.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1.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富山房, 1893.

白鳥庫吉, 『白鳥庫吉全集』 3, 岩波書店, 1970.

津田左右吉,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岩波書店, 1924

박대재, 「삼국유사 고조선조 인용 위서론」, 『한국사연구』 112, 2001.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연구」,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1994.

선석열, 「신라·가야시기 부산지역 대외교류의 변화와 반전」, 『항도부산』 29, 2014.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2021.

李丙燾, 「檀君神話의 解釋과 阿斯達 問題」, 『서울대 論文集』 2(인문사회과학 편), 1955.

이영화, 「일제시기 단군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 『한국사학사학보』 22, 2010.  
한영우, 「1910年代 申采浩의 民族主義 史學」, 『韓國民族主義歷史學』, 일조각, 1994.

高橋亨, 「檀君傳説に就きて」, 『同源』, 同源社, 1920.

今西龍, 「上古－原始時代及び開國傳説」(1919); 『朝鮮史の槩』, 近澤書店, 1934.

今西龍, 「檀君考」, 『青邱說叢』 1, 1927;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1.

那珂通世, 「朝鮮古史考－朝鮮樂浪玄菟帶方考」, 『史學雜誌』 5-4, 1894.

落合直澄, 「檀君」, 『帝國紀年私案』, 吉川半七, 1888.

稻葉君山, 「檀君說話」, 『朝鮮史學』 6, 朝鮮史學同攷會, 1926年.

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1894.

三浦周行, 「朝鮮の開國傳説」, 『歴史と地理』 1-5, 1918.

小田省吾,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朝鮮史講座』, 朝鮮史學會, 1926.

林泰輔, 「開國ノ起源」, 『朝鮮史』, 吉川半七, 1892.

齊藤忠, 「集安角低塚壁畫の熊と虎の畫」, 『東アジア葬制の研究』, 第一書房, 1987.

青柳南冥, 「檀君神話」, 『朝鮮史話と史蹟』, 朝鮮研究會, 1927.

【ABSTRACT】

## The Assertion of Buddhist Monks' Manipulation of Dangun Myth by Japanese Official Scholar

Seon, Seok-yeol

This study reviewed and critically examined the manipulation theory by Buddhist monks of Dangun(檀君) myths, which were raised by Japanese official scholars around the 20th century. Earlier, they argued that Dangun was an ancient Japanese god Susanoo(素戔鳴尊),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same ancestors. There was criticism by Japanese scholars, but it distorted the existence of Dangun. Their argument pointed out Buddhist monks Ilyeon(一然) as the subject of manipulation and manipulation, owing to the fact that even Joseon Confucian historians said that they could not believe the Dangun myth.

Next, Japanese scholars denied the fact that Dangun myths are not seen in Chinese history books and that Confucian scholars of Joseon also can not ridiculous and believe various myths of ancient Korea. In particular, Naka Michiyo(那珂通世) said that Dangun's Wang-Geom was the old name of Pyongyang, Wang-Heom, which was operated by Wang-Geom. However, Unlike their claims, Chinese history books had Wang-Geom(王儉) of the person and Wang-Heom(王險) of the place are written by applying the tabular notation.

The letter 'wang' is written as a dictation of the king which means the

king. The word 'geom' was written as a negative reading. The Wang-Geom meant king as a person from the standpoint of Gojoseon.

In other words, it was 'Wang-Geom' for people, and the royal castle where the king resides was marked as 'Wang-Heom'. Before the appearance of Wiman, the existence of the Wang-Geom was already being conveyed, and Confucian historians in Korea were also aware of Buddhist historians. Until now, the title of 'Im-Geum(임금)' is used in Korea. In recent studies, Dangun myth was recognized at the time of Gojoseon, which is in the same context as the monks of the Goryeo period could not fabricate its myths.

【Key words】

Dangun Myth, Buddhist Monks' Manipulation, Ilyeon(一然), Tabular Notation, Wang-Geom, Imgeum, Historical Entity

